

# 과거 현재 미래



李根熙

〈漢陽大工大教授·韓國工業經營學會長〉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으로, 그것은 교훈으로는 될 수 있지만 결코 미래 설계를 위한 소재로는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연연하다가 보니, 현재를 올바르게 평가함이 없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고 가공된 꿈을 꾸기가 보통일 것이다.

우리들 보다는 앞서서 걸어 가고 있는 이른바 선진국들에게도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걸음걸이를 교훈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현재를 비판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며, 또 비판 속에서 찾아내야 할 길을 내다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들이 지난날 큰 강에다가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높은 산에 굴을 뚫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다리를 놓고 굴을 파야 한다는 추적개발은 오히려 현대화에 차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인지는 모른다.

강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남들이 가는 국토개발의 지름길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수중 턱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수상 쾌속정 등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은 강에다가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앞서게 된 것이므로 반드시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래도 과거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가령 선진국의 1930년대가 우리의 1980년대와 같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1930년대와 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생산규모나 생산능력은 1930년대와 엇비슷할지 모르지만 생활수준이라든가 생각수준은 틀림없이 1980년대에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넘겨 보아서는 아니 된다.

현대는 개방된 사회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인데, 이러한 개방의 개념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한 지역사회에서, 한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개방되어가는 지구촌

의 시대인 데도, 아직 폐쇄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이든 그것은 선진화 해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만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누군가가 또 어디에선가 경험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슬기일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과거를 교훈으로 삼는 지혜일 것이지만 과거에 집착해서 그것을 반복해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면서 어찌 미래를 개척할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미래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현재를 살피면서 창조되어 가야만 할 것이다. 이때의 창조는 길로 가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길이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여야만 참된 뜻을 지닌 길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새로히 만든 길이라도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마음놓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여야만 할 것인데, 이 길은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고서야 비로소 새로운 신작로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지 그것을 미래로 끌고 가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현대 역사는 너무나도 짧은 것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길, 미래의 길은 보다더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만 비로소 과거를 제대로 관찰한 것일 것인데, 어찌면 과거를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오늘 살고 있는 보람과 같은 것을 맛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경향을 이제는 말끔히 씻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를 모르는 과거란 장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미래설계의 소재는 될 수 없을 것이며, 현재는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를 평가하면서 미래를 창조해 내는 길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슬기를 갖춘 희망이 있어야만 삶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보다는 한층 더 보람된 내일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내일로 가는 길은 오늘의 피곤함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이여야만 할 것이고, 오늘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보상될 수 있는 길이여야만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웃음던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 어제 보다도 오히려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면 그 누가 미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누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누구나가 오늘을 참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지만 오늘이 어제의 되풀이만으로 그치고 있다면 그 누구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이란 정말로 어둡고 침침한 가시나무 숲속과도 같을 것이다.

지난날의 우리는 빗더미 속에서 살아왔다. 빗을 지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잘 살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빗을 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한걸음 더 나가서는 채권국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고 떠드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허리띠는 좀체로 느슨해 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조금은 살만해 졌다고 하니 조금만 더 주면 좋겠다고 아우성을 쳐 보아도 아직은 줄 수 없다고 맞서기도 하니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

수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으며, 국제수지에서 흑자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지만, 나누어 주는 것은 없다. 물론 힘들여 깎 잣을 한입으로 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살림이 늘어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조금은 허리띠도 생각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되돌아 보고, 현재를 제대로 분석하면서 미래를 슬기롭게 설계하는 일만이 우리 모두가 개척해야 올바른 길일 것으로 믿고, 믿어 봐야 할 것이다.

☞